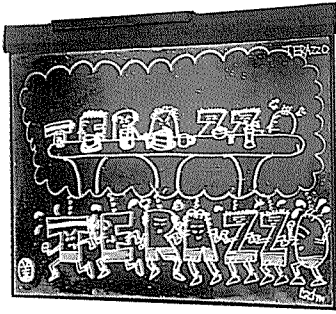




인테리어연구

조명이 있어 더욱 좋은 공간

**청담동 테라조**



뭐하고 사는지 하루하루를 쫓기다 살다보면 웬만한 사람이라 해도 색다른 공간이 그리울 때가 있다. 청담동에는 크고 작은 많은 화랑이 많이 있다. 이곳저곳 전시된 그림도

보고 고급 패션숍의 윈도우쇼핑도 하다 보면 지치기 마련이다.

이때 편안한 카페에서 차라도 한잔 할 수 있으면 그보다 좋은 일이 있을까.

압구정동에서 청담동으로 넘어가는 네거리를 조금 지나면 왼쪽으로 테라조를 만나게 된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이듯 '테라조'에서는 고급스런 분위기에 맞는 케이크를 곁들일 수 있어 더욱 맘에 드는 공간이다.

언뜻 그냥 지나치기 쉬운 외장 분위기를 지닌 '테라조(TERAZZO)'의 뜻은 진흙으로 만든 공예라는 의미로 이태리의 유명한 디자인 잡지에서 이름을 빌어왔다 한다.

무엇보다 테라조의 분위기는 조명에 있다. 원주형의 독특한 조명이 고급스런 가구와 어우러져 동양과 서양의 분위기를 넘나들고 있다. 외부공간과 오픈시키는 요즘의 외장과는 달리 전면을 문으로 하여 자연광을 조절한 것은 조명이 주는 신비감을 살리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리고 이곳의 벽면과 천정색으로 처리한 토파즈색이 조명과도 잘 어울릴뿐 아니라 이러한 유럽풍의 분위기에 가구의 매치도 뛰어나다.

테라조의 객석공간은 두곳의 개성있는 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천정벽화가 있는 입구의 객석공간은 두곳의 개성있는 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천정벽화가 있는 입구의 객석공간과 짙은 색의 목재 트러스트로 분위기를 낸 안쪽 객석공간으로 나뉘져 있다. 그리고 객석공간은 독특한 모양의 문양으로 양각된 칸막이가 있어 조명역할을 하고 있기 도 하다.

이제 카페에서도 케이크를 맛보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테라조의 케이크 메뉴는 초코, 홍차, 모카케이크를 비롯하여 크림치즈케이크, 블랙퍼스트, 모카슈 등 10여 종류. 독특한 모양으로 짜여진 테라조의 쇼케이스에 들어있는 맛있는 케이크가 이곳의 분위기를 더욱 고급스럽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조그만 테라조의 쇼케이스가 무엇보다 크게 다가온다. ☺

◁ 카운터에서 바라본 매장. 맞은 편에는 서비스 테이블이 있고 공장은 이곳을 지나야 들어갈 수 있다. 토파즈색의 천정과 벽, 비단색이 천정벽화와 조화를 이루며 모자이크 무늬의 의자가 포인트를 주고 있다.

▽ 입구에 위치한 카운터와 쇼케이스. 짙은 색 나무에 고전적인 장식과 문양으로 양각화된 칸막이가 객석공간을 구분하고 조명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 입구에 위치한 객석공간. 토파즈색의 벽면과 천정의 색이 독특한 모양의 조명과 어우러져 고급스런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 테라조의 외장. 카페같지 않은 심플한 외장 분위기가. 흰색을 주조로 짙은 색의 독특한 문양이 힘있어 보인다.

▽ 안쪽에 위치한 객석공간. 문쪽에 채양을 설치하여 조명을 조절하고 있다.

